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2001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1년 한 해 동안 심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중심으로 『2001 건강보험심사평가통계연보』 제24호를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1년 진료현황 총괄

- 2001년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5억 7100만 건으로 2000년 4억 1400만 건에 비하여 38.0% 증가하였고, 요양급여비용은 17조 8195억원으로 2000년 13조 1410억원에 비하여 35.6% 증가하였음.
- 2001년 의료급여(의료보호) 청구건수는 2744만 건으로 2000년도 1692만 건에 비하여 62.1% 증가하였고, 의료급여비용은 1조 9496억원으로 2000년 1조 5562억원에 비해 25.3% 증가하였음.
- 2001년 건강보험의 65세 이상 노인 요양급여비용은 3조 1681억원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17.8%를 차지하였고, 2000년도의 2조 2893억원에 비하여 38.4% 증가함.
- 참고로 2001년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21만명으로 적용인구의 6.9%를 차지함.

□ 상병별 진료현황

- 2001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이 진료한 양방 진료건수는 다음과 같음.

- 입원: 자연분만,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분만, 치핵, 노인성 백내장,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순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성 백내장의 경우 노인 인구의 증가 등으로 2000년도 8만 9천 건에서 26.6%증가한 11만 2천 건으로 증가폭이 매우 큼.
- 외래: 급성기관지염, 급성상기도, 급성편도염, 본태성 고혈압, 급성비인두염(감기)순으로 다발생 상병의 대부분이 감기관련 상병으로 나타났음.

- 감기로 인한 외래 청구건수는 8047만 건으로 약국을 제외한 전체 외래 청구건수의 25.0%, 요양급여비용은 1조 6038억원으로 약국을 제외한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8.2%를 차지함.

□ 외래 본인부담률

- 2001년 건강보험 전체 외래 본인부담률은 29.6%로 2000년 36.8%보다 7.2%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은 전년대비 6.6%포인트 감소한 31.5%, 약국은 2.7%포인트 감소한 25.9%로 나타남.

- 의원과 약국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내원일당 비용 크기별로 보면 의원의 경우 내원일당 진료비가 10,000~15,000원인 경우 20.6%로 가장 낮고, 약국의 경우는 방문당 약제비 5,000~10,000원인 경우 17.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외래 진료 처방률

- 의약분업에 의한 2001년도 외래 진료 처방횟수는 3억 7500만회이고, 처방일수는 19억 1900만일로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는 5.1일로 집계되었음.

- 의약분업전인 1999년도의 외래 내원일당 투약일수는 3.4일임.

- 외래 진료의 처방전 발행횟수를 내원일수와 비교한 처방비율은 66.7%로, 이는 요양기관을 3회 방문한 경우 2회는 처방전이 발행되었음을 의미함.
- 외래 처방비율은 의원이 83.6%로 가장 높고, 종합병원 65.6%, 병원 64.7%, 종합전문기관 56.1%의 순임.
- 원외처방횟수당 처방일수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전문기관은 27.1일, 종합병원 13.6일, 병원은 7.4일, 의원은 3.8일로 나타남.
- 특히 종합전문기관의 경우 31일 이상의 장기처방이 전체 처방횟수의 36.7%를 차지함.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현재에는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과 학원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780시간의 실습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과 국무조정실의 조정에 의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예정)자들에게도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중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동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현재 전국 5개 실업계 고교에 간호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현재 학과가 개설된 실업계 고교에 한해서 응시자격을 부여토록 하기 위해서 내부지침으로 학과 개설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함.

‘2003년도 최저생계비’와 ‘2003년도 현금급여기준’ 결정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김성호 보건복지부 장관)를 개최하여 ‘2003년도 최저생계비’와 ‘2003년도 현금급여기준’을 결정하였다.

- 내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기준으로 월 35만 6천원이며, 2인가구 58만 9천원, 4인가구 101만 9천원 등임.
 - 이는 금년도 최저생계비보다 3.0%를 인상시킨 것으로서, 내년도 예상 물가상승률 3%에 2002년도 당초 예측치와 실적추정치의 차이를 보정키로 하였으나, 예측치와 실적추정치가 3%로 동일하여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만 반영하였음.
 -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으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
- 내년도 현금지급기준은 1인가구 31만 3천원, 2인가구 51만 9천원, 4인가구 89만 7천원 등임.
 - 이는 금년도 현금급여기준보다 3.0% 인상시킨 것임.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비 등의 최고 지급기준으로서, 개별가구는 이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됨.
 - ※ 소득이 50만원인 4인가구: 39만 7천원 지급(89만 7천원 - 50만원)

장애인 범주 확대 법령개정안 마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시책의 수급권을 확대하고자 기존 10종인 법정장애를 15종으로 확대하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12월 7일부터 12월 26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호흡기, 간, 안면변형, 장루, 간질 등 5종이 추가되는 금번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기존 법정 장애인과 유사한 사회적·신체적 불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복지시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약 118,000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 수급권을 갖게 됨.

동절기 미신고 복지시설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장관은 동절기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양성화 유도와 시설생활자(17,170명)를 위한 월동비 등의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신고 복지시설(926개소)에 대해 월동비, 화재보험료 등 지원을 통해 시설생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시설당 100만원 내외, 총 9억 3천만원)하고, 비닐하우스, 가건물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한 취약시설(20개소)에 대해서는 전세·신축비용 용자알선 및 7년간 이자를 지원함.
-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원하는 미신고 시설 170개소는 1천만원까지 시설안전 지원을 통해 양성화를 적극 유도함. 재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을 활용함.

2002년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02년도 전국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녀 양육지원서비스 이용 실태

- 부모 이외 보육시설, 유치원, 조부모 등 자녀양육지원서비스 이용 비율은 총 71.6%이고, 시설이용률은 만 4세까지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다가 만 5세 이후부터는 유치원, 학원 등의 이용이 증가하였음.

□ 보육시설 이용 실태

- 보육시설 이용 사유는 '자녀개발을 위해'(62.5%), '자녀를 맡아 줄 사람이 없어서'(34.3%) 등으로 나타났음.

- 보육료 수준은 평균 14만원으로 나타났고, 영아 또는 초등학생을 둔 가정과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서민층에서 비용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음.
- 보육시설 이용자는 대체로 만족(88%)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미흡한 사항으로는 시설설비, 안전, 교사의 자질 등을 지적하였음.

□ 보육수요 추계

- 영유아(만 5세 이하) 372만명 중 추가로 보육수요가 있는 아동은 단기 25만명, 중기 54만명, 장기 182만명으로 나타났음.
- 초등학생(만 6~11세)의 방과후 보육수요는 단기 60만명, 중기 76만명, 장기 91만명으로 파악되었음.